

매일 만나

2023. 7.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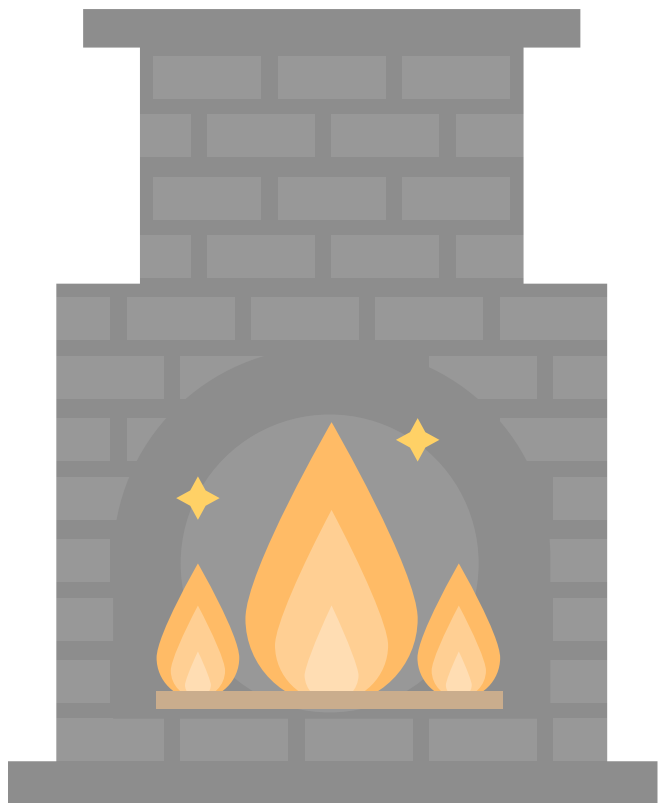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01

토요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벧후1:1-11

새찬송가 461장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 암송

저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4)



1~11절 이같이 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이단,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성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약속으로 결코 이 땅의 금은 보화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더욱 힘써야 할 7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성품인 덕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셋째, 성경에 계시된 것에 만족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 절제, 넷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 다섯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경건, 여섯째,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형제 우애와 친절, 일곱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0절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는 순종으로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집니다. 또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2

주일

어느때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벧후1:12-21

새찬송가 338장

-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 암송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



12~21절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도는 이미 복음을 알고 그 진리 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 은혜와 유익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도가 날마다 큰 감사의 제물 살아가는 기쁨이 됩니다. 12~21절의 교훈은 첫째,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셋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며,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3

월요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벧후2:1-11

새찬송가 357장

-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 4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 8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 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암송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7:15)



1~11절 본문이해

이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이들의 다른 특징은 음란함이며, 부도덕함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기에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과 물질적 부요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첫째, 거짓 교사,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특징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증거이자 예시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04

화요일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벧후2:12-16

새찬송가 321장

-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 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1:11)



멸망당할자들

베드로는 거짓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정욕이 이끄는 자들로 사는 자들로 그들의 종말 역시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과 탐욕을 일삼으며 저주의 자식이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것을 대가로 불의의 삯을 받았던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보면 거짓 교사들은 무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훼방을 일삼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불의의 삯을 따르는 발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발람의 길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05

수요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벤틀후2:17-22

새찬송가 268장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 암송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벤틀전4:7)



거짓 교사의 유혹과 실상

거짓 교사들은 초신자들을 음란함으로 미혹하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물이 있어야 할 샘에 물이 없는 것과같이, 안개처럼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상과 같으며 그들 앞에는 캄캄한 어둠만이(하나님의 심판)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악인의 오만함과 자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06

목요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벧후3:1-7

새찬송가 197장

-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 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 암송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7:1)



베드로의 기록목적

베드로는 본 서신(베드로후서)을 기록하는 목적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구약)과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신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주님의 재림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려는 악한 행위이며 이미 홍수시대에 교만했던 자들이 심판당함을 잊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현상의 유지는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두신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07

금요일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벧후3:8-18

새찬송가 542장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
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
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
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
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눅12:40)



확고한 재림신앙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더디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은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같이 올 것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08

토요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1:1-10

새찬송가 449장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



1-2절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경험적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요1:14) 공동체의 경험이 요한일서에서는 실제적, 감각적으로 표현되면서 친밀도를 강화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명'이라는 인격적 생동감으로 경험케 한다. 요한 공동체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현재는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9절 죄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현재 가정법 능동태로, 계속적 죄의 고백을 강조한다. '고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의 문자적 의미는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함께 말하다'이다. 즉 여기서 고백은 하나님과 죄인이 한 가지 동일한 것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공유하며 털어놓는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누가 그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부려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사53:4-6, 롬5:8).



말씀이 기준이 되어,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귀의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09

주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요일2:1-6

새찬송가 430장

-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2:3)



4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실천은 앎의 실제적 증거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므로써 영생이 입증됨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뿐 아니라(17:3)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다(4절, 13절, 3:1, 6절, 4:6-8, 5:20).

5-6절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다.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계명(말씀)을 지키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진다고 설명한다(요14:15, 15:10).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신자의 삶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구현되었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5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6절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예수)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함(헬)호페일레이)을 가르친다. 헬라어 '호페일레이'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실천적 의무를 강조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살펴봅시다.

10

월요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요일2:7-11

새찬송가 419장

-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 9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 암송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요일2:10)



7-8절 옛 계명과 새 계명

7절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명령(6절)이 새롭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며, 사도적 가르침과 연속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7절에서 저자는 '새 계명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한다. 이는 당시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계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므로("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신자들에게 사랑의 명령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요13:34).

9-11절 형제를 향한 사랑

이 단락은 8절의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제시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행위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10-11절).

'거리낌'으로 번역된 헬라어(스칸달론)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뜻한다. 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존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행동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는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11

화요일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아이들아

요일2:12-17

새찬송가 391장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
이요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
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 암송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2:17)



12-14절 서신을 쓰는 이유

이 단락에서 저자는 1:5-2:11에서 언급한 사도적 진리를 세 범주의 독자들(자녀, 아비, 청년)에게 확인하고 있다. 저자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12절), 아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음을(13절),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음을 말하며(14절) 믿음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진리를 확인한다.

'자녀들' 또는 '아이들'은 교회의 전체 구성원을 염두에 둔 호칭이고, '청년들', '아비들'은 삶과 믿음의 단계를 염두에 둔 수사학적 호칭으로 보인다. 14절은 12-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독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15-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의 첫 번째 명령이 15절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6절).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대조된다. 세상적 정욕과 자랑의 일시성과 허구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원성과 대조된다(17절). 세속적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의 실체를 보여준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이 있나요?

12

수요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일2:18-29

새찬송가 180장

- 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 암송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일 2:24)



본문설명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거짓진리를 퍼트려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꺼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이를 통해 제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인양성, 예수님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다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고 전파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

목요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일3:1-12

새찬송가 261장

-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 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 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2)



본문설명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가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불법을 일삼는 일에 빠져서 옳은 일을 분별 할 수 없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합니다 (3절)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6절) 우리는 죄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데 그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

금요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일3:13-24

새찬송가 336장

-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 암송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3:18)



본문설명

요한은 진실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무엇인가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15

토요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일4:1-6

새찬송가 383장

-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 암송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



본문설명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내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경계합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부터 판치고 있었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도전 세력과 맞서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명료함과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뉴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람, 호흡, 천사, 귀신, 비육체적 존재, 사람의 비유형적 요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 등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요한 사도는 암약하는 이 악한 영을 정확히 분별하라고 명합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당시에 통용되던 금화의 진위 여부를 시험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얇은 단순한 지식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이 바로 성육신,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입니다.

또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지금 커보이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16

주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일4:7-12

새찬송가 263장

-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사랑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므로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17

월요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4:13-18

새찬송가 292장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3:12)



본문설명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자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18

화요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일5:1-12

새찬송가 293장

-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 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 암송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형제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9

수요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21

새찬송가 420장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 암송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영생이 있는 성도의 담대한 삶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에 이르지않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확신과 영생의 삶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20

목요일

서로 사랑하자

요이1:1-6

새찬송가 337장

-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으로다
-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 암송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본문설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있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형제를 향해 '라가', 곧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심판을 불러 오는 죄임을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의 결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앎이 실천을 이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온대로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조롱하고 놀리던 입술이 격려와 위로의 입술로 변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며 나도 가난하다는 이유를 들어 돕지 못함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고후 8:1-5)처럼 자원하는 심정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성도됨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21

금요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요이1:7-13

새찬송가 292장

-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지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1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본문설명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대표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도 흥왕했지만 이와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번성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 진리를 가려냄으로써 이미 뿌려진 복음을 통해 얻은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먼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받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천국에서 무궁히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2

토요일

사랑하는 자여

요삼1:1-8

새찬송가 368장

-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 21:13)



본문설명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3절 이하에 언급된 대로 순회 전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등 항상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낮선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절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도 없이 이기적인 자세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쁨으로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습니까?

23

주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요삼1:9-15

새찬송가 546장

-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말씀 암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본문설명

사도 요한의 11절의 권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이오가 이에 영향받아 그를 좇음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본받되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도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4

월요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이라

유1:1-8

새찬송가 342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말씀 암송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1:7)



1~8절 이단의 교훈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체적 죄악입니다

8절은 이단자들에 대한 유다의 평가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라고 요약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총체적으로 죄악을 저질렀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이단의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이단은 그 가르침이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믿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 끝이 달라짐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는 작은 것 같지만 결국 '타락한 천사,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단은 진리와 비슷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꾀현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심이 너무 쉽게 허물어 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진리에서 조금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늘 총체적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손길을 분별하여 물리 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의 하고 있습니까?

25

화요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유1:9-16

새찬송가 336장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 암송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



9-16절 비진리 추종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10-11절에서는 의미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예고로 "멸망하느니라"와 "멸망을 받았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생이나 이단자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진 그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같은 사실이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알곡과 쭉정이 함께 있는데 마지막이 되었을 때 쭉정이는 밖에 버려지고 알곡은 정성을 다해 추수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참 진리를 따른다 라고 하며 오히려 진리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을 회유하고 핍박하고 헐박하여 결국 비진리를 따르도록 도전하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해 받으며, 때로는 어리석다 조롱 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엉켜 있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이 땅에서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교훈자들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패배가 확정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던 성도들의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갖 소문과 도전을 받으며 살 때에도 끝까지 참고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26

수요일

사랑하는 자들아

유1:17-25

새찬송가 446장

-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암송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17-25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려면 아비의 심정을 구해야 합니다

22-23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의 미혹에 빠져 심판의 길에 들어섰거나, 더욱 깊은 죄악에 빠져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모두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단 교훈에 빠진 자들은 죄에 깊이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아비된 심정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느끼실 감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을 구별 할 수 있으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27

목요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80:1-19

새찬송가 267장

- 1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 3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 5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 6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 7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 9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 10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 13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 14 만군의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 16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 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 19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 암송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 25:8)



1-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인도하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그들의 죄가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와 허물조차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확실하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가 되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28

금요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시81:1-16

새찬송가 540장

-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 3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 5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 6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 8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 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 13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 14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 16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 암송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 119:67)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종종 당하여 눈물지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고통 없이 사는데 유독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고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성숙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9

토요일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시82:1-8

새찬송가 84장

-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데도다
-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 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말씀 암송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향하여 시인은 종말론적 심판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시편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과 그들에게 임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게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수할 수 없습니다. 오류도 범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으로 완벽한 공의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완벽한 공의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의 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를 세우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럽혀진 공의를 바라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끝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며 소망을 품어 봅시다

30

주일

침묵하지 마소서

시83:1-18

새찬송가 88장

- 1 하나님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 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 3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 4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 5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 6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 8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 9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 10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 11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엿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 13 나의 하나님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 14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 15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 16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한 순간도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시인은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거나 숨어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듯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와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사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외면하시는 듯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거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31

월요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84:1-12

새찬송가 314장

-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다윗왕과 함께 도피길에 올라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의 모습으로 추정합니다.

시인은 도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등지를 틀고 살고있는 참새, 제비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천 날'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한 날'이 더 가치있으며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3. 7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